

최대 60% 할인...“추석선물 ‘사전 예약’으로 부담 줄이세요”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사전판매 돌입...가성비·안전에 중점
고객 선호·프리미엄 상품 등 품목 확대...와인·이색 과일 등 다양

롯데·신세계·현대 등 백화점 ‘빅3’가 추석 선물세트 예약 판매에 들어간다. 올 추석 선물세트 콘셉트는 크게 ‘가성비’와 ‘안전’으로 좁혀진다. 각 백화점은 고물가로 지갑 열기를 주저하는 고객들을 위해 할인가가 적용된 선물 물량을 늘리고, 식품 안전 검사를 통과한 제철 원물을 엄선해 예약판매에 들어간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광주점을 포함한 전 점포에서 총 190여개 품목의 추석 선물세트를 최대 60% 할인된 가격에 예약 판매한다. 품목별 할인율은 축산 20~25%, 정과 10~35%, 수산 20~30%, 건강 10~60%다. 예약 판매 품목 수는 고객이 선호하는 상품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10% 확대됐다. 비타민과 홍삼 등 건강 관련 품목이 가장 많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올해는 추석 선물세트를 준비하면서 물가 상승 부담과 함께 명절을 준비하는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고자 노

력했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는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농·축·수산물과 건강식품, 와인 등 총 240여개 품목의 추석 선물세트를 예약 판매한다. 할인율은 명절 최고 인기 상품인 한우 5~10%, 과일·과일 20%, 와인·건강식품 최대 60%다. 수산 품목 가운데 굴비, 갈치, 옥돔은 지난해 겨울부터 봄 사이 제철에 잡은 원물을 미리 수매해 식품 안전 검사를 통과한 상품만을 엄선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로 수산물 섭취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안전 검사를 강화했다. 10만원대 이상 프리미엄 상품도 지난해 추석에 비해 17% 늘린 130여개 품목을 준비했다. SSG닷컴의 신세계백화점몰에서도 이달 27일까지 추석 선물세트를 예약 구매할 수 있다. 지난해 추석 대비 상품 수를 15% 늘렸고, 최상급 상품을 엄선한 프리미엄 선물세트와 7만~10만원대 실속 선물세트를 함께 구성해 선택 폭을 넓혔다. 광주신세계 식품 관계자는 “한우, 굴비 등 추석

대표 선물부터 건강식품과 와인까지 식품 전 장르에 걸쳐 합리적인 가격의 추석 선물행사를 선보인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도 신세계와 같은 기간 예약 판매를 통해 260여종의 추석 선물세트를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전국 16개 점포와 현대백화점 공식 온라인몰 더현대닷컴, 식품 전문 온라인몰 현대식품관 투룸 등에서 상품을 판매한다. 온라인몰과 모바일앱으로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상품 할인에 더해 할인쿠폰 제공, 더머니 적립, 행사카드 할인 등의 다양한 추가 혜택을 준다. 현대백화점은 고물가로 ‘가성비’ 선물세트를 찾는 고객이 늘 것으로 보고 할인가가 적용된 예약 판매 품목과 물량을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렸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명절 기간 세분된 고객 취향을 반영해 친환경 한우와 신상품 이색 정과 등 차별화된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지난 10일 추석 선물세트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6일 신세계백화점 모델이 올 추석 예약판매하는 굴비 선물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약 240여 개 품목의 추석 선물세트를 예약 판매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올 가을 신상 미리 확인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3층 여성패션 매장에서 직원이 올 가을·겨울신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패션 의류매장 60% 이상을 가을 의류로 교체, 올 가을 유행할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색감의 화려한 디자인의 의류를 선보일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스타벅스, 아이스커피도 ‘트렌타’ 사이즈 판매

스타벅스가 아이스 커피도 대용량 제품인 ‘트렌타’ 사이즈로 판매를 시작한다. 16일 스타벅스 코리아는 스타벅스 개점 24주년 맞아 9월 30일까지 한정 판매하는 30온스(887ml)의 대용량인 트렌타 사이즈를 아이스 커피

피에도 적용해 판매한다. 대용량 제품을 선호하는 트렌드에 확산함에 따라 ‘트렌타’ 사이즈가 인기를 끌면서 출시 후 약 3주 만에 누적 판매 60만잔을 넘어섰기도 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트렌타 사이즈를 ‘월드 브루’와

‘자몽 허니 블랙 티’, ‘딸기 아사이 레모네이드 스타벅스 리프레시’ 등 3종에만 적용해 운영해왔다. 이밖에 스타벅스는 대용량 트렌타 사이즈를 담을 수 있는 ‘사이렌 트렌타 콜드컵’도 새롭게 출시, 사이렌 트렌타 콜드컵과 트렌타 음료를 함께 구매하면 음료 가격을 2000원 할인하는 이벤트도 판매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치솟는 닭고기값에 육용계 종란 500만개 첫 수입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육용계 종란이 17일 국내에 도착한다고 16일 밝혔다. 종란은 식용이 아니라 부화 목적인 계란으로, 부화한 병아리를 키위 식용 닭을 시중에 공급하기 위함이다. 2017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으로 산란계 종란을 수입한 적은 있으나, 육용계 종란을 수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하림과 동우푸드에이블 등을 통해 네덜란드산 종란을 약 500만개 수입해 향후 부화

한 400여만 마리의 병아리를 농가에 공급하게 된다. 사육 기간을 감안하면 10월부터 수입 계란에서 부화한 육용계 시중에 공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국내 병아리 가격과 종란 수입 후 부화한 병아리의 생산원가 차액 일부를 보조할 방침이다. 이번 육용계 종란 수입은 닭고기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다. 지난해 육계 공급은 6728만 마리로 작년 대비 6.2% 줄었다. 이에 따라 최근 닭고기 도매가격은 전년 대비 9.3% 올랐고, 소비자가격도 전년보다 12.0% 오른 상태다. /김민석 기자 mskim@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한달 새 3단계 올라

편도 최고 16만3800원 ↑

국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오는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8월보다 3단계 뛰어오른 ‘11단계’가 적용된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경우 9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2만800원~16만3800원이다. 이달 적용된 1만5600원~11만4400원에서 30~40% 올랐다. 아시아나항공은 편도 기준 2만3300원~13만4600원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한다. 역시 7월에 적용된 1만6900원~9만6000원에 비해 인상됐다. 유류할증료는 2016년부터 적용된 국토교통부 거

리비레제에 따라 항공사들이 내부적으로 세부 조정을 거쳐 책정한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ℓ)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단계로 나눠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58.75센트로 11단계에 해당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편도 기준 9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9900원으로, 8월보다 3300원 인상됐다. 제주항공, 진에어 등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일괄적으로 9900원을 적용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연합뉴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